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도참고자료	열린 대한민국 정부 새롭게 나은 정부

2019년 3월 22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03. 22.(금) 오전 11:30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9. 3. 21.	담당부서	기계로봇과
담당과장	박영삼 과장(044-203-4310)	담 당 자	허정민 사무관(044-203-4316)

“ 정부, 로봇산업 글로벌 4대강국으로 키운다”

- 뿌리, 섬유 등 전통 제조업에 제조로봇 7,560대 보급
- 돌봄 등 4대 서비스로봇 집중 육성, 사회적 약자 등에 1만대 보급
- 로봇 스타기업 20개 육성하고 로봇시장 규모 15조원으로 확대

□ 정부는 3월 22일(금) 대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로봇산업 산·학·연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, 로봇산업을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‘**로봇산업 육성전략 보고회**’를 개최했다.

○ 이번 행사에서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성윤모)는 중앙정부 차원의 “**로봇산업 발전방안**”을, 대구시는 “로봇산업 선도도시 추진방안”을 각각 발표했다.

< 로봇산업 육성전략 보고회 개요 >

□ **일시/장소** : ‘19. 3. 22일 (금), 10:30 ~ 11:20 (’50) / 현대로보틱스

□ **참석자** : 산업부 장관, 과기정통부 장관, 대구시장, 국회의원, 기업인, 학계, 협회·기관 등 총 300여명

□ **주요내용** : ‘로봇산업 발전방안’ 발표(산업부), ‘로봇산업 선도도시 대구’ 발표, 로봇관계자 현장목소리 청취, 로봇제품 전시·관람 등

○ 산업부는 로봇산업 글로벌 4대 강국 달성을 위해 **▲3대 제조업 중심 제조로봇 확대 보급**, **▲4대 서비스로봇 분야 집중 육성**, **▲로봇산업 생태계 강화** 등 3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.

【 ❶ 3대 제조업 중심 제조로봇 확대 보급 】

□ 우리나라는 **제조로봇 활용도*에서 세계 1위**이나, 제조로봇 산업은 **전자전기, 자동차 분야를 중심****으로 발전해왔다.

* 우리나라 제조업 종사자 1만명당 로봇활용대수(로봇밀도)는 710대(세계평균 85대)
** 업종(로봇 보급대수): 전자전기(141,691대), 자동차(87,417대) vs 뿌리(4,112대), 섬유(2,504대)

○ 그러나, **뿌리, 섬유, 식·음료**와 같이 **근로환경이 열악하고 인력부족 해소**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**로봇 활용이 저조**한 상황으로 정부는 이와 같이, **제조혁신이 시급한 분야**를 중심으로 **제조로봇을 집중적으로 보급**하기로 했다.

○ 특히, 정부는 로봇과 스마트공장을 접목하여 전통 제조업을 되살리는 동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.

○ 정부는 먼저 제조로봇 보급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**표준 활용 모델 개발***, **활용인력 교육**을 함께 지원한다.

* **표준모델** : 도입가능 로봇제품, 해당공정용 설계도, 기술표준 요구사항, 로봇 운영방법, 동영상 매뉴얼 등을 포함하는 안내서

○ 이와 함께, 뿌리, 섬유, 식·음료 등을 중심으로 **제조로봇 7,560대를 선도 보급**하고, 이를 계기로 **민간이 자율적으로 큰 부담 없이 로봇을 활용**할 수 있도록 **임대(렌탈), 빌림(리스) 서비스**도 도입할 계획이다.

【 제조로봇 보급·확산 계획 】

◈ **(정부) 표준활용 모델 개발 → 컨설팅·교육 → 선도 보급, (민간) 자율 확산**

표준활용 모델 개발	→	컨설팅·교육	→	선도 보급	+	민간 자율 확산
▸공정상태, 법규 등을 고려 개발		▸도입·전후, 로봇사용자 교육		▸도입비 보조후 작업환경 개선 등		▸렌탈, 리스 연계 민간 자율도입
108개 표준모델		1,080개사 / 2,160명		1,080개사 / 7,560대		

◈ **보급·확산 대수(누적): ‘18년 32만대 → ‘23년 70만대**

【 ❷ 4대 서비스로봇 분야 집중 육성 】

□ **서비스로봇 산업은 아직 시장초기 단계**로 향후 **산업이 급성장***이 예상되고 있으며, 최근 우리 기업이 **복강경 수술로봇을 상용화**하고, 배설 지원 로봇으로 **일본 시장에 진출**하는 등 서비스로봇 분야에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.

* 서비스로봇 시장 전망(국제로봇연맹): ('17) 86억 달러 → ('21) 202억 달러(년 약 24%성장)

○ 정부는 **수익성과 성장성**을 고려하여 **돌봄, 의료, 물류, 착용형(웨어러블)** 등 유망 서비스로봇 분야를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.

○ 먼저, '20년부터 총 3천억 원 규모의 **연구개발 사업***을 추진해 **4대 서비스로봇 분야 기술력을 선진국 수준**으로 높여가기로 했다.

* 비즈니스창출형 서비스로봇시스템 개발사업('20~'26, 예타중)

○ 또한, "사람을 위한 로봇산업"이라는 모토하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로봇을 집중 보급하여 포용국가 실현을 앞당길 방침이다.

○ 이에 따라, **돌봄로봇**을 10개 지자체와 협력하여 **중증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**으로 5,000대를 보급하는 등 **4대 서비스로봇 총 1만 대를 보급**할 계획이다.

【 4대 서비스로봇 분야 보급사업 】



○ 아울러, 서비스로봇 확산에 **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, 개선**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 중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내에 "**로봇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***"를 설치·운영한다.

* 로봇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: 규제 발굴 → 상담·컨설팅 → 신속해결

【 ❸ 로봇산업 생태계 강화 】

□ 로봇산업을 떠받치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로봇제조사와 수요기업을 연결하는 **로봇 분야 시스템통합 전문기업(SI)을 육성**하기로 하였으며, 미국, 일본 등에 의존하고 있는 **로봇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의 자립화**도 추진하기로 했다.

【 국내 로봇산업 생태계 현황 】



○ '20년부터 7년간 약 1천억원을 투자하여 **차세대로봇**에 필요한 지능형 제어기 등 **3대 핵심부품***과 영상정보 처리 등 **4대 소프트웨어**** 기술을 확보해 나가기로 하였다.

* (3대 핵심부품) 지능형 제어기, 자율 주행 센서, 스마트 그리퍼,
(4대 S/W) 로봇 S/W 플랫폼, 잡는 기술, 영상정보처리, 인간로봇 교감 S/W

○ 아울러,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산업간, 기술간 융합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**자율차, 공장기계, 인공지능(AI)** 등 인접 분야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"**로봇 융합 얼라이언스**"를 운영한다.

□ 정부는 위 3대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'23년까지 **스타 로봇기업(연매출 1,000억 원 이상 로봇전문기업) 20개**를 육성하고 **로봇 산업을 15조 원 규모로 발전**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.

□ **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**은 "최근 **인공지능, 5세대(5G)통신** 같은 새로운 기술이 로봇에 접목되면서 **로봇이 더욱 지능화** 되고, **제조업 현장**은 물론 **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서 널리 활용**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",

○ 이번 발전방안을 통해 "**제조로봇 시장을 확대하고, 뿌리, 섬유, 식·음료 등 수요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는 한편,** 향후 고성장이 예상되는 **서비스로봇 산업도 경쟁력을 강화하여 로봇산업 4대 강국으로 발전시키겠다.**"라고 밝혔다.

※ 별첨의 예산 내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향후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 허정민 사무관 (☎ 044-203-431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